



## 미국 독신은퇴자의 금융상품과 투자조언 수요

박정희 선임연구원

독신은퇴자는 재정적·감정적·신체적 웰빙(well-being)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은퇴준비가 중요함. 설문조사에 따르면, 독신은퇴자 중 여성이 남성 및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에 비해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음. 독신은퇴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전통적인 IRAs로 나타났으며,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정적인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### ■ 독신은퇴자<sup>1)</sup>는 재정적·감정적·신체적 웰빙(well-being)생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은퇴준비가 중요함<sup>2)</sup>

- 2016년 미국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, 65세 이상 1인 가구 고령인구 4,746만 명 가운데 45%가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며,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
- 더욱이 독신은 자녀들을 출가시킨 부부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은퇴에 대비하는 자금적립비율이 더 높아야한다고 생각함

### ■ LIMRA의 설문조사 결과, 독신은퇴자 중 여성이 남성 및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에 비해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본 조사는 2016년 12월 독신인 고령은퇴자(55~79세)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방식의 설문조사이며, 응답자(남성 372명, 여성 758명)는 연간퇴직소득이 최소 3만 5천만 달러 이상, 처분가능자산은 평균 42만 달러로 나타났음
- 독신은퇴자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보다 퇴직보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본인이 원하는 은퇴생활이 가능한지(71%, 독신은퇴자 64%), 본인의 저축과 투자가 90세가 되

1) 독신(Singlehood)은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, 별거 등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,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인도 포함됨

2) LIMRA(2018. 3), "Singlehood in Retirement: A Study of Retirees"

- 어도 고갈되지 않는지(65%, 독신은퇴자 59%), 본인이 생각했던 은퇴생활 방식과 부합하는지 (68%, 독신은퇴자 57%) 등 모든 항목에서 배우자가 있는 커플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
- 한편 독신여성은 남성보다 장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,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호 비용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대비가 필요함
    - 여성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비용(21%, 독신여성 34%)과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비용(33%, 독신여성 44%), 임의비용(22%, 독신여성 24%) 모두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
  - 결과적으로 은퇴 이전 기대와 퇴직 후 실제생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, 은퇴 생활방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함

#### ■ 독신은퇴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IRAs로 나타났으며,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정적인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남성은 IRAs(46%), 주식(39%) 등을 선호하는 반면, 여성은 IRAs(47%), 은퇴저축플랜(42%)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은퇴한 여성(42%)은 남성(28%)에 비해 투자관리 결정을 위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러한 선호는 은퇴 자문서비스에 대한 의존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
  - 현재 10명 중 4명이 자문업자들로부터 은퇴설계에 도움 받고 있으며,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인지와 신체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재무 및 의료관련 결정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될 것임
- 이러한 자문업자의 투자조언이 여성에게는 은퇴생활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 - 그러나 많은 독신퇴직자 가운데 공식적인 소득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문업자의 역할이 요구됨
- 남성과 여성의 독신퇴직자 중 연금수령율은 투자조언 유무에 따라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
  - 투자조언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율은 48%와 59%인데 반해 투자조언 없는 경우의 연금수령율은 20%와 30%인 것으로 나타났음 **kiri**